

나눔의 프락시스에 기초한 기독교 대학생 진로상담의 모델과 실천방향

박진희*

국문초록

대학 졸업 이후 직업을 갖는 것은 개인의 성장과 행복한 삶의 영위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진로과업이다. 지식과 정보의 시대인 현대 사회에서 기독교 대학생들의 건강한 직업 준비와 적응, 유지를 위한 기독교 진로상담은 일반적인 진로상담과는 달리 성경을 근거로 한 기독교 세계관과 소명의식에 근거하여 이루어지는 전인적인 과정이다.

본 연구는 기독교 대학생의 진로정체감 확립을 위한 진로상담의 핵심적인 가치를 기독교 세계관, 기독교 인간관, 성경적 직업관에 두고, 기독교 대학생들이 사회 속에서 건강한 구성원으로 적응하도록 진로상담을 신앙의 실천적인 입장에서 수행하도록 하는데 목적을 두었다. 나눔의 프락시스(Shared Praxis)에 기초한 기독교 진로상담은 청년기의 진로과업을 행동-비판적 성찰-새로운 행동이라는 프락시스적 접근을 통해 전개된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된 그리스도인의 전인적 존재의 의미와 소명의식에 따른 직업의 본질적인 의미를 기독교 신앙의 통전적인 관점에서 인식하도록 하였다. 기독교 대학생들이 주어진 진로과업을 기독교적 관점에서 설계하고 준비할 수 있도록 진로상담의 모델을 개발하였다. 나눔의 프락시스에 기초한 기독교 진로상담의 모델은 도입단계, 인지단계, 변화단계, 적용단계의 네 단계로 구성되었으며 각 모델은 신앙의 실천적 삶에 구체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구조화되었다.

중심단어: 진로상담, 기독교상담, 기독교 진로상담, 기독교 대학생 진로상담, 나눔의 프락시스

• 논문 투고일: 2013년 4월 15일

• 논문 수정일: 2013년 4월 30일

• 게재 확정일: 2013년 5월 4일

*고신대학교

www.kci.go.kr

I. 여는 글

현대 사회에서 전 생애를 통해 만족할 수 있는 진로나 직업을 선택하는 일은 개인마다 행복한 삶을 추구하고 영위하는 데 있어 매우 중요한 일이다. 진로를 어떻게 결정하는가에 따라 삶의 많은 부분들이 결정될 뿐만 아니라 삶의 질이나 만족감의 정도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대학생의 진로발달은 청소년 후기에서 성인초기로 넘어가는 과도기적인 위치에 놓여 있다. 이 시기의 발달 과업은 진로정체감 확립과 진로결정, 학교에서 직장 으로의 전환, 직업적응을 동시에 준비하는 것으로 궁극적으로는 전 생애의 진로과업을 성취하기 위한 준비과정에 놓여 있다. 개인 내·외적 진로과업 준비와 적응기에 있는 대학시기와 달리 현대 사회는 지적 능력과 창의력에 바탕을 둔 직업의 종류가 갈수록 다양화, 전문화되고 있으며, 직업의 생성 및 소멸 또한 빠른 속도로 변화하고 있다.¹⁾ 최근 우리나라 청년층 인구비율은 매년 감소하는 추세인 반면에 청년층 비경제활동 인구는 갈수록 증가하고 있다.²⁾ 이것은 비경제활동 청년층에 대한 대책마련의 시급성을 짐작 하도록 해준다.

기독교상담에 있어 사회의 일원으로 진출하기 위해 준비 중인 기독교 대학생에 대한 진로상담의 시행은 현대 우리사회가 안고 있는 당면과제이다. 기독교 대학생의 진로선택과 진로결정을 돕는 기독교 진로상담의 전제는 진

-
- 1) 고용노동부, 『2011 한국직업전망』(서울: 한국고용정보원, 2011). 한국고용직업분류(KECO)에 수록되어 있는 우리나라의 직업군은 현재 총1만 1천 600여종에 이른다.
 - 2) 통계청, “2012년 5월 경제활동 인구조사 청년층 및 고령층 부가조사 결과”, 2012년 5월 보도자료: 한국고용정보원, “청년 노동시장 실태분석”, 2010년 11월 보도자료. 통계조사에 의하면 2012년 현재 우리나라의 청년 인구는 전년도에 비해 10만 2천명이 감소한 총951만 2천명이다. 이 중 청년 취업자는 전체 고용률의 41.1%에 해당하는 391만 1천명으로 전년대비 1만 9천명이 감소하였으며, 실업자는 전체 실업률의 8.0%에 해당하는 34만 2천명으로 전년대비 3만 1천명이 증가하였다. 또한 구직단념자와 취업준비생을 포함한 비경제활동 인구비중은 2003년 5.2%에서 2010년 8.6%로 7년 동안 18만 9천명이 증가하였다.

로과업 수행에 있어 무엇을 사고(knowing)하고, 무엇을 행(doing)하며, 각자가 속한 공동체와 사회 속에서 어떤 삶을 살아야 할지(being)에 대한 진로 정체감을 확립하도록 하는 것이다. 개인의 진로선택과 진로결정에 따른 직업적 역할을 수행한다는 것은 단순히 직업을 선택함으로써 안정된 삶의 만족감을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책임 있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생애과업을 성취하는 것이며, 이를 직업 속에서 실천하는 '신앙의 실천적인 삶'을 의미한다. 기독교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기독교상담의 제 연구는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나 기독교 진로상담에 대한 실천적인 선행 연구는 아직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가장 근접한 연구로 오윤선의 '기독교대학생을 위한 진로상담 프로그램이 진로의사 결정과 자아개념에 미치는 영향'³⁾과 황혜리·류수정의 '대학생의 진로결정수준과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진로장애, 진로태도성숙 및 영적 안녕과의 관계'⁴⁾ 등이 있다.

본 연구는 기독교 진로상담의 과정을 기독교교육의 한 방법인 나눔의 프락시스(Shared Praxis) 접근모형으로 적용하여 기독교상담의 핵심 목표인 전인적 변화와 성장을 실천하도록 연구되었다. 진로상담을 기독교적 관점으로 재구성하는 기독교 진로상담은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기독교적 진로 정체감 확립을 위한 성찰과 변화를 경험하고, 당면한 진로과업을 삶으로 실천해 나가도록 구조화하였다. 진로 확립기에 해당하는 대학생의 시기에 진로직업에 대한 편견과 오류들을 기독교적 정체감에 바탕을 둔 기독교 진로상담으로 교정한다면 진로정체감의 혼란으로 인해 갈등을 겪는 기독교 대학생들에게 중요한 문제해결력을 갖게 해 줄 것이다. 나아가 변화된 진로 정체감은 그들로 하여금 현 세계 안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에 대한 고

3) 오윤선, "기독교 대학생을 위한 진로상담 프로그램이 진로의사 결정과 자아개념에 미치는 영향", 한국복음주의 기독교상담학회, 「복음과 상담」 제13권 (2009): 118-136.

4) 황혜리·류수정, "대학생의 진로결정수준과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진로장애, 진로태도성숙 및 영적 안녕과의 관계", 한국기독교상담 심리치료학회, 「한국기독교상담학회지」 제18권 (2009): 355-380.

려와 장래의 삶에 대한 진지한 물음을 갖게 하여 보다 구체적이고 적극적인 진로역할을 수행하도록 도와줄 것이다.

II. 펴는 글

1. 진로상담

일반적으로 진로(進路, career)란 개인이 생애를 사는 동안 일과 직업, 경력과 관련해서 체험하고 수행하는 모든 경험들을 의미하는 용어이다. 진로는 일생을 통해 무엇인가를 축적해 놓은 직업적 경력을 뜻하는 과거적인 의미와 동시에 다가올 생애의 모든 단계에서 축적해가야 할 행로라는 미래 지향적인 의미를 포함한다. 이런 점에서 진로는 개인의 직업적인 일을 비롯하여 퇴직 이후의 삶을 포함한 생애전반에 걸친 경력의 과정이라고 할 수 있으며, 삶의 주된 활동을 포괄하는 복합적이고도 종합적인 의미로서 직업의 상위개념에 해당된다.

진로정체감은 직업에 대한 자아정체감(self identity)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개인의 정체감은 생애초기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에 대한 동일시와 아동기 및 청소년기의 경험에 뿌리를 두고 성인초기까지 지속적으로 발달하게 된다. 자아정체감에 대한 주요개념을 기반으로 발달한 진로정체감은 '자신의 제반특성을 정확히 파악하고 자아를 실현시킬 수 있는 일 곧 직업이 무엇인가에 대한 나름대로의 자기인식이나 생각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진로상담에 있어 중심이 되는 진로발달이론(career development theories)은 진로발달을 개인의 전반적인 발달의 한 측면으로 이해한다. 개인이 성장함에 따라 신체적, 정신적으로 발달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진로에 대한 지식이나 태도, 기능도 어릴 때부터 발달하기 시작하여 성인초기까지

일련의 단계를 거치면서 발달한다는 개념이다. 진로발달을 인간발달의 한국면으로 보고 직업선택 과정에 발달적 접근방법을 도입시킨 Eli Ginzberg에 따르면 발달 초기의 직업관은 개인의 욕구, 흥미, 능력, 가치관 등과 같은 내적인 요인에 의해 좌우된다. 하지만 직업을 선택하는 시점에 이르면 개인은 내적 요인을 고려할 뿐만 아니라 가정환경, 부모의 영향, 직업 조건 등과 같은 외적 요인을 동시에 고려하여 결국 이들과의 타협을 통해 직업을 결정하게 된다.⁵⁾

Ginzberg의 이론에 대한 미흡성을 비판하고 보다 포괄적인 관점에서 진로발달이론의 정립을 시도한 Donald E. Super는 진로발달을 아동기부터 성인초기까지 국한된 과정으로 두었던 Ginzberg의 초기 이론에 반박하며 진로발달은 인간의 전 생애에 걸쳐 이루어지고 변화되는 과정으로 보았다.⁶⁾ 그는 타협을 직업선택의 본질적인 측면으로 이해한 Ginzberg의 이론을 보완하여 직업을 타협과 선택이 상호 작용하는 일련의 적응과정으로 보고 이를 진로발달이론에 적용시켰다. Super가 각 발달단계에 해당하는 연령을 고정시키고 있는 반면 직업발달의 단계는 연령과 관계없이 문제의 성질에 의해 좌우되며 평생동안 여러 번 반복될 수 있다는 입장을 취한 학자는 David V. Tiedeman과 R. P. O' Hara이다. 이들은 직업발달이란 개인이 일을 하면서 분화와 통합을 통해서 직업적 정체감(vocational identity)을 형성해가는 의사결정의 연속적인 과정으로 정의하고 진로의사결정과 관련된 분화와 통합과정을 보다 구체적으로 개념화하였다.⁷⁾ 하지만 이들 이론은 실험집단의 편향성, 자아 개념 및 지적 측면의 지나친 강조로 인해 연구 결과를 일반화시키기에는 한계가 있다.

5) E. Ginzberg, S. W. Ginsburg, S. Axelrad & J. L. Herma, *Occupational Choice: An Approach to a General Theory* (New 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1951).

6) Donald E. Super, "Career and Life-Space Approach to Career Development,"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18 (1980): 282-298.

7) David V. Tiedeman & Robert P. O'Hara, *Career Development: Choice and Adjustment* (New York: College Entrance Examination Board, 1963).

그럼에도 불구하고 Ginzberg와 Super, Tiedeman에 의한 진로발달이론은 개인의 생애전반에 걸쳐 발생하는 진로관련 행동이 어떻게 발달하고 변화하였는가를 주목하도록 한다. 이들 이론은 청년기 진로발달에 필요한 자아개념의 인식과 발달, 진로성숙, 진로문제의 현실적 검토와 타협, 진로선택과 의사결정 및 직업적응 등에서 나타나는 진로과업을 상담의 과정에서 보다 구체적으로 적용시킬 수 있도록 명료화해준다.

2. 기독교 진로상담의 구성요소

기독교 상담에서 다루지는 중요한 상담목표 중 하나는 상담자와 피상담자 간 협력적인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피상담자의 전인적 변화와 성장이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imago dei)을 따라 창조되어진 유한한 존재이기에 다른 피조물에게는 나타나지 않는 하나님의 어떤 속성이 투사되어 있다. 그러므로 기독교 진로상담은 창조, 타락, 구속이라는 기독교의 핵심 논제를 기초로 하는 기독교 세계관과 죄로 인한 하나님의 형상 회복을 다루는 기독교 인간관, 그리고 직업을 통한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하기 위한 성경적 직업관의 원리 아래 출발하여야 한다.

1) 기독교 세계관

기독교 세계관은 시대를 초월하여 사람들이 그들의 의식 또는 무의식의 흐름 속에서 형성하는 전제들을 포함한다. 이러한 전제들은 사람들의 모든 문화 활동에 영향을 미쳐 일상적인 삶의 형태뿐만 아니라 정치, 사회, 교육, 상담 등 인간의 모든 문화적 활동에서 영향을 받는다. Albert Wolters는 기독교 세계관의 특징들을 '원래의 선한 창조, 죄로 인한 창조세계의 타락, 그리스도 안에서 구속을 통한 창조세계의 회복'이라고 정리하였다.⁸⁾

8) Albert M. Wolters & Michael W. Goheen, *Creation Regained: Biblical Basics for a Reformational Worldview*, 양성만 · 홍병룡 역, 『창조, 타락, 구속』(서울: IVP, 2007), 38.

이것은 기독교 세계관이 성경에 근거하고 있으며 성경은 하나님의 창조와 인간의 타락, 허물과 죄로 죽은 인간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구속 사역을 기록하고 있음을 가르쳐준다. 따라서 이러한 창조, 타락, 구속의 구조는 기독교 세계관이 포함해야 할 기초가 될 뿐 아니라 여러 가지 세속적 세계관의 기원을 말해주며, 이들을 성경적 입장에서 평가, 비판하는 척도가 된다.

인간은 본질상 가치중립적인 존재가 아니므로 개인의 가치 체계를 나타내는 세계관으로부터 누구도 자유로울 수 없는 존재이다. 직업을 선택함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 개인이 갖는 세계관은 직업을 선택하거나 결정할 때 그 자신이 의식을 하든 못하든 상관없이 다양한 문화적 활동의 전제들에 영향을 받는다. 그러므로 기독교 진로상담에 대한 선결 과제는 인간은 어떤 형태로든지 불가피하게 세계관을 견지할 수밖에 없음을 인정하는 것에 있다. 나아가 올바른 세계관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고 그 세계관으로 자기 자신을 명확하게 무장하여야 한다.

일반적인 기독교 세계관의 구분은 역사적 흐름에 따라 전개되지만 본 연구에서 다루는 기독교 세계관은 역사적 흐름에 따른 개념의 변화가 아닌 삶을 바라보는 그리스도인의 자세와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기독교 문화관의 입장에서 논하고자 한다. 기독교 문화관의 유형을 구분한 Richard H. Niebuhr는 그리스도와 문화의 관계를 대립과 적응의 관계로 두고 그 중간에 통합의 개념이 있다고 보았다. 그에 따르면 그리스도와 문화의 상관관계는 크게 종합, 이원론, 변혁의 관계에 있으며, 이를 세분화하면 문화에 적대적인 자세(Christ against culture), 문화에 동화된 자세(Christ of culture), 문화를 판단하는 자세(Christ above culture), 문화와 병행하는 자세(Christ and culture in parallel), 문화를 변화시켜야 한다는 자세(Christ transformer of culture)의 다섯 가지 유형으로 분류된다.⁹⁾ 또한 칼빈주의

9) Richard H. Niebuhr, *Christ and Culture*, 홍병룡 역, 『그리스도와 문화』 (서울: IVP, 2007).

전통을 따르는 개혁주의 신학자인 Robert E. Weber는 그리스도인의 문화 활동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피조세계를 개발하여 모든 문화영역이 기독교적 가치를 반영하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이를 분리 모델, 동일시 모델, 변혁 모델, 성육신 모델의 네 가지 유형으로 분류하여 설명하였다.¹⁰⁾

기독교 문화관에 대한 이와 같은 주장들을 바탕으로 그리스도인의 문화에 대한 조망과 책임을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¹¹⁾

첫째, 하나님의 창조를 기뻐하고 누리는 것이다. 누림에 대한 행위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것은 바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다. 또한 하나님의 창조세계를 누림으로 생산되는 다양한 문화적 산물을 활용하는 것 역시 누림에 대한 행위가 된다. 둘째, 하나님의 창조질서를 지키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본래적으로 두신 세계를 누리기 위해서는 먼저 자신의 행위가 하나님의 창조질서에 위배되지 않도록 스스로를 경계해야 한다. 또한 다양한 비기독교적인 문화적 환경들로부터 자기 자신을 지켜야 한다. 셋째, 다양한 문화적 환경들이 하나님의 질서대로 되돌려지도록 다스리는 것이다. 옳은 것과 그른 것, 선한 것과 악한 것, 아름다운 것과 아름답지 않은 것 등을 분별하여 이것들이 창조 질서를 따라 조성되도록 청기기적 책임을 가져야 한다. 넷째, 문화에 대한 궁극적인 그리스도인의 책임은 회복이다. 각 사람은 타락으로 인해 왜곡된 피조세계의 질서를 회복해야 하는 책임을 가지고 있다. 여기서 가장 핵심적인 것은 모든 문화의 근원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하는 것이며, 그 원리를 삶의 현장에서 구체적으로 실천해가는 것이다.

결국 그리스도인으로서 문화를 변혁하는 삶이란 현재를 살아가는 세상을 명확히 분별하여 이 땅에 존재하고 있는 문화적 환경이 보다 기독교적인 가치를 반영하도록 그리스도인 개인이 자신의 신앙을 삶으로 실천하는 것을 의미한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기독교 신앙과 삶의 경험을 통해 얻어

10) Robert E. Weber, *The Secular Saint: The Role of the Christian in the Secular World*, 이승구 역, 『기독교 문화관』(서울: 엠마오, 1993), 77-167.

11) 이숙경, 『기독교 교육과 문화이해』(서울: 도서출판 그리스심, 2005), 83-85.

진 성경적인 지혜가 개인의 인격과 세계관 안에 존재할 때 진정한 변화의 가능성이 열리게 되고, 하나님을 더욱 신뢰함으로 삶에 적용해 가는 변화의 열매를 거둘 수 있는 것이다. 하나님이 의도하신 일 곧 직업의 참된 의미를 이해하고 이를 삶으로 실천하기 위한 기독교 세계관의 이러한 문제들은 성경적인 직업역할 수행을 위한 준비와 적용에 있어 반드시 전제되어야 할 기독교 진로상담의 핵심적인 과업이라고 할 수 있다.

2) 기독교 인간관

기독교는 인간의 존재를 성경에 기초하여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기독교 진로상담에서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인간의 본질적인 의미를 명료화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인간이 삶 전체에서 이미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전인적 존재임을 나타내주는 기독교 인간관은 크게 세 가지 의미로 정리될 수 있다. 첫 번째,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되었다는 것이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된 인간의 본질적인 속성은 통전적이며, 종교적이며, 전인적인 존재이다.¹²⁾ Hoekema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간의 의미를 네 가지로 분류하여 설명하고 있다.¹³⁾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을 지녔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책임적, 반응적, 응답적 존재라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인간이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따라 하나님의 창조세계를 돌보고 관리하는 문화적 사명과 청지기적 책임을 가지고 있음을 잘 설명해준다.¹⁴⁾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창조세계에 대한 사명과 책임을 지녔다는 통전적 관

12) Anthony A. Hoekema, *Created in God's Image*, 류호준 역, 『개혁주의 인간론』 (서울: 기독교문서선교회, 1990), 168-177.

13) 후크마는 인간에 대한 의미를 첫째, 인간을 바라볼 때 항상 미래적 견지에서 바라보아야 하며, 둘째, 남자와 여자가 함께 합쳐져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며, 셋째, 하나님의 형상에 관한 가르침은 교회가 가지고 있는 복음 전도의 사명에 대해 큰 중요성을 내포하고 있으며,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형상이 통전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것은 오직 전체로서의 인류 안에서라고 설명하였다.

14) 김성수, “개혁주의 기독교교육의 원리와 과제”, 『하나님의 주권과 은혜: 이근삼 박사 사역 50주년 기념논집』 (서울: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 출판국, 2002), 530.

점에서의 인간이해는 진로상담에서 피상담자를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창조적 맥락 안에서 다루어야 함을 의미하는 것이다.

기독교 인간관이 갖는 두 번째 의미는 모든 인간은 종교적이라는 것이다. 이것은 종교는 개인적이거나 삶의 일부분이 아니라 인간의 삶 자체가 종교적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지상에서 인간이 영위하는 모든 개별적 삶과 공동체적 삶은 종교적 특성을 지닌다. 인간의 삶 전체가 종교적이라는 것은 곧 인간의 삶의 모든 활동 영역이 섬김과 예배의 생활이 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삶에서 소위 중립적인 영역이란 결코 존재하지 않으며, 이것은 진로상담의 과정이나 내용 역시 본질상 중립적일 수가 없음을 전제하는 것이다.

기독교 인간관이 갖는 세 번째 의미는 인간은 전인적 존재라는 것이다. 인간에 대한 성경적 관점은 항상 통전적이며 전인적이다. 성경이 인간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는 인간의 어떤 구성 요소나 부분들에 대해 논하고 있지 않으며 항상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전인적인 모습을 다루고 있다. 기독교 인간관은 인간의 전인성, 즉 인간은 존재와 삶의 전체 영역에서 이미 하나님의 형상인 것을 잘 나타내준다. 따라서 기독교 인간관에 입각한 진로상담은 인간에 대한 전인적인 이해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해주며, 기독교적 관점에서 진로선택과 진로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도와준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기독교적 인간상을 지닌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은 복음적 신앙을 통해 중생한 그리스도인 됨, 하나님과의 영적 교제를 통한 성숙한 인격의 형성, 사회적 관계 안에서 정의와 사랑의 실천, 자연 세계와의 관계에서 청지기적 문화 사명의 수행 등의 네 차원으로 설명할 수 있다.¹⁵⁾ 하지만 인간 존재에 나타나는 근본적인 죄의 문제는 피상담자의

15) 조성국, “한국 기독교교육의 교육적 인간상의 이상과 현실”, 한국기독교교육학회, 「기독교교육논총」 제10권(2004): 236.

기독교적 진로정체감 형성을 방해하는 갈등의 주된 원인이 된다. 개인의 정체감은 세상을 바라보고 그를 둘러싼 환경이나 사물, 다른 사람을 이해하는 통로이자 그것들을 해석하는 중심 영역이다. 진로갈등을 겪는 많은 사람들은 자신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 받은 존귀한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진로에 대한 명확한 확신을 갖지 못한 채 심리적 · 정서적 · 행동적인 측면에서 또 다른 문제를 야기하고, 나아가 더 이상의 진로탐색이나 직업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준비를 포기해버린다. 이처럼 죄의 문제는 개인의 진로정체감의 근원을 인식하는 데 영향을 미치는 결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한다. 진로상담에서 죄의 문제에 대한 언급은 진로선택과 직업결정의 과정에서 야기되는 갈등들을 직면하기 위한 중요한 도구가 된다.

기독교 인간관은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다는 긍정적인 측면과 여전히 죄의 영향 속에 위치하고 있을 수밖에 없는 부정적인 측면을 양면적으로 가지고 있다. 죄의 속성으로 인한 인간의 자기중심적 사고 및 행동에 대한 성경적인 자기인식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과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은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도록 전환점을 제공해준다. 이런 점에서 죄에 대한 성경적인 이해와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자아정체감에 대한 분명한 인식을 기독교 진로상담에서 언급하는 것은 피상담자로 하여금 하나님 중심의 진로선택과 직업결정을 돕기 위한 중요한 절차인 것이다.

3) 성경적 직업관

직업은 인간생활의 기본욕구를 충족시켜 주는 중요한 활동 중 하나에 해당한다. 직업은 자기 자신과 생계를 유지한다는 의미에서 생업(生業)이라고도 불리는데 이를 도식화 하면, career > occupation = vocation > job으로 설명된다.¹⁶⁾ 직업에 대한 성경적인 어원을 정리하면, 직업은 단순히 생

16) 김충기, 『직업교육과 진로교육』(서울: 한국학술정보, 2004), 23-26. 여기서 career는 occupation 보다는 큰 개념으로 진로라 일컬어지며, occupation이나 vocation은 비교적 같은 개념으로 설명되지만 job은 해당 업무에 종사하는 직무로 이해할 수 있다.

계를 목적으로 하는 수단으로서의 일(job)이 아닌 하나님의 소명으로서의 직업(vocation)으로 이해된다.¹⁷⁾ 이것은 성경적인 직업은 보수적 개념의 일(occupation)이 아닌 소명(vocation)의 개념에서 오는 부르심을 받은 일(calling)로 이해되어야 함을 의미한다.¹⁸⁾

그리스도인의 소명은 모든 사람이 주권적인 하나님을 기억하고 모든 곳에서, 모든 것에서, 전적으로 그분을 위하여 생각하고, 말하고, 살고, 행해야 할 것을 의미한다.¹⁹⁾ 특히 직업에 대한 성경적인 소명은 the call과 callings 모두를 포함하는 것이다. 직업적 소명은 하나님과의 관계회복을 통한 개인의 존재(being) 의미와 직업으로의 부르심(doing)에 대한 역할수행을 동시에 내포하는 것이다.²⁰⁾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성경적인 직업가치관은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 똑같이 부르심을 받았으며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맡은 일은 그 일의 중요성과 상관없이 모든 일이 다 의미 있게 중요하다는 직업평등사상을 근본으로 한다.²¹⁾ 직업을 소명으로 이해하려는 노력은 Martin Luther나 John Calvin의 소명론을 통해 이해할 수 있다. 이들은 소명의 개념을 어느 한 부분에 제한시키기를 거부하는 가운데 인간의 삶 가운데 주어진 모든 일상적인 일들 속에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다고 가르쳤고, 그 일들을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소명으로 생각했다.²²⁾

Luther는 1512년에 발표한 “De votis monaticis”(수도원의 맹세에 관하

17) 직업에 관한 성경적 근거는 창46:33; 삼상25:2; 삼하20:1; 왕상12:16; 대하10:16; 사58:14; 레16:8,9,10; 민26:55; 시16:5; 행19:25; 행18:3; 출3:12,5:18,20:9; 창2:5,4:2 등에서 다양하게 찾아볼 수 있다.

18) 고전 7:17, 24 “오직 주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 주신대로 하나님이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내가 모든 교회에서 이와 같이 명하노라..(중략).. 형제들이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개역한글)

19) Os Guinness, *The Call*, 홍병룡 역, 『소명』(서울: 한국기독교학생회, 2006), 53.

20) John R. W. Stott, *The Contemporary Christian*, 한화룡·정옥배 역, 『현대를 사는 그리스도인』(서울: IVP, 1993), 174-184.

21) 김세열, 『기독교 경제논리』(대전: 한남대학교 출판사, 1999), 129-133.

22) Robert D. Knudsen, *Sociology: The Encounter of Christianity with Secular Science*, 서영일 역, 『기독교 사회학』(서울: 은성, 1989), 89.

여)에서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로써 직업문제에 대하여 소명(calling)을 받는다고 언급함으로써 사람들은 누구나 농부나 장인(匠人) 등 직업에 종사해야함을 설명하였다.²³⁾ Luther에게 있어서 소명은 복음을 통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부르심을 전제하는 가운데 그리스도인의 모든 세속적인 직업, 외적인 신분, 그리고 직책을 포괄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또한 Calvin의 직업소명을 살펴보면 직업은 일종의 할당된 초소(the post assigned)이며 하나님의 자녀로서 성실하게 성취해야 할 몫이다. Calvin에 따르면 그 어떤 직업도 하나님이 보시기에 하찮고 불품없는 것이란 없으며, 직업 활동은 하나님의 예정에 의한 구원의 자기 확신을 획득하는 가장 좋은 수단과 방법이 된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항상 최선을 다해 자신의 직업에 대한 노동을 성실하게 수행하는 것을 필요로 한다. Calvin은 모든 사람이 특정한 직분을 하나님께로부터 부여받았고, 각자 그 직업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면서 살도록 부르심을 받았기에 맡겨진 직업에 최선을 다함으로써 하나님의 뜻을 세상 속에서 확인하고 실천해 갈 수 있어야 한다고 가르친다.²⁴⁾

직업을 갖고 직업생활을 유지한다는 것은 다양한 직업 환경 속에서 어느 한 직무를 분담함으로써 그리스도인으로서 사회적 역할에 참여하고, 생계 유지의 목적을 달성하며, 보람과 성취에 따른 자아실현 등의 목적을 균형 있게 이루기 위함이다. 그러나 현대 사회의 청년들을 포함한 많은 기독교 대학생의 경우 직업을 일반적인 측면에서 인식하려는 경향성이 두드러진다. 상당수의 학생들은 직업을 직업생활을 하면서 사회인으로서 갖게 되는 지위나 명예, 생계유지 수단을 위한 일련의 활동 정도로 이해하며 수입의 많고 적음을 직업의 중요한 가치요인으로 결정해버린다. 이런 점에서 Luther와 Calvin의 소명론은 직업에 대한 이원론적 사고를 가질 수 있는 기독교 대

23) 김윤기, 『현대직업윤리』 (서울: 학문사, 1997), 26.

24) 이찬규, “공직 윤리 제고방안 연구: 칼빈의 직업 윤리적 관점을 중심으로” (박사학위 논문, 천안대학교 기독교전문대학원, 2006), 23

학생들에게 직업가치관에 대한 인식을 전환할 수 있도록 해준다. 특히 복음을 직접적으로 전하는 사역 중심의 직업만이 가치 있는 일이며 그 외의 다른 일반적인 직업들은 세속적이거나 가치가 없다고 판단하기 쉬운 사고를 가진 기독교 청년들에게 새로운 도전을 제공할 수 있다.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기독교 진로상담은 창조, 타락, 구속, 그리고 완성으로 설명되는 기독교 세계관, 기독교적 정체감 형성과 더불어 문화명령의 수행으로 표현되는 기독교 인간관을 전제로 하여 성경적 직업관의 영향 아래 변화와 성장을 돕는 점진적인 성화의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일반적인 진로상담에서 지향하는 주된 관심은 현대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다양한 문화적 현실을 반영하여 당면한 진로과업의 외적 수행과 성취를 돕는 것에 지나치게 편중되는 경향이 있다. 반면, 기독교 세계관과 기독교 인간관, 성경적 직업관의 도입을 통한 기독교 진로상담은 자칫 피상적이거나 과업중심적인 진로상담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기초를 제공해준다. 나눔의 프락시스에 기초한 기독교 진로상담은 피상담자의 삶에서 경험한 다양한 진로문제들과 사회·문화적 현실을 현재라는 프락시스 과정을 통해 비판적으로 성찰하도록 이끌어준다. 또한 피상담자의 성찰된 결과를 기독교 신앙의 본질적인 목적을 향해 나아가도록 하여 성경 본위의 직업에 대한 참된 의미를 재발견하고 당면한 진로목표와 과업성취를 이루어가도록 도와준다.

3. 나눔의 프락시스에 기초한 기독교 대학생 진로상담의 모델과 실천방향

나눔의 프락시스(Shard Praxis)²⁵⁾는 과거로부터 전수된 기독교 신앙의

25) '공유적 실천', '공유적 삶', '나눔의 실천', '나눔의 교육' 이라고도 불리우는 나눔의 프락시스(shared praxis)는 가톨릭계 종교교육학자 Thomas H. Groome에 의해 발전된 교육 방법론이다. Groome은 과거로부터 전수된 기독교 신앙을 현재와 미래의 삶으로 연결하는 신앙 교육적 과제에 있어서 나눔의 프락시스 접근을 기독교종교교육의 해석학적 접근 모형으로 제시하였다. 그의 교육사상과 방법을 담고 있는

이야기와 비전을 현재와 미래의 삶으로 연결하여 참여하게 하는 기독교 교육의 한 방법이다. Thomas H. Groome은 기독교 신앙을 전 생애에 걸쳐 발달하는 과정으로 보고 기독교 교육은 신앙의 내용만을 전달하는 방식이 아닌 그리스도인의 전인적 성장을 이끌기 위한 의도적인 교육과정으로 다루어질 것을 제시하였다. Groome이 제시한 교육의 중심 주제는 하나님의 나라이다. 그에 따르면 하나님 나라의 구약적 의미는 창조되어진 모든 피조물과 역사, 하늘과 땅, 지금과 영원에 대해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하심을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것이며, 신약적 의미에서 하나님 나라는 이미 시작된 (already begun) 과거, 지금 오고 있는(coming now) 현재, 아직은 성취되지 않은('not yet' fulfilled) 미래를 상징하는 말이다.²⁶⁾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의 중심적인 주제가 하나님 나라였던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는 기독교 신앙과 그리스도인 됨의 의미를 지닌 교육의 중심 주제이다. 교육의 참여자를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고자 하는 이러한 교육 목표는 기독교 교육의 또 다른 분야인 기독교 상담의 영역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이다. 이런 측면에서 나눔의 프락시스는 전술하였던 기독교 진로상담의 핵심 요소인 기독교 세계관, 기독교 인간관, 성경적 직업관을 현재의 행동, 비판적 성찰, 성찰된 행동이라는 세 가지 측면에서 접근할 수 있도록 해준다.

1) 나눔의 프락시스 교육 방법론

하나님 나라를 위한 Groome의 교육 방법에 있어 시간은 항상 현재적인

대표적인 저서로는 *Christian Religious Education: Sharing Our Story and Vision* (기독교적 종교교육)과 *Sharing Faith: A Comprehensive Approach to Religious Education and Pastoral Ministry* (나눔의 교육과 목회), 그리고 *Educating for Life* (생명을 위한 교육) 등이 있다.

- 26) Thomas H. Groome, *Sharing Faith: A Comprehensive Approach to Religious Education and Pastoral Ministry*, 한미라 역, 『나눔의 교육과 목회』(서울: 기독교 대한감리회홍보출판국, 1997), 14-21.

것이다. 그는 과거, 현재, 미래를 각각 구분되는 단절된 시간이 아니라 현재라는 시간 속에 동시에 존재하는 세 가지 양상으로 보았다. 즉 이미 있는 것, 현재 경험되는 과정, 그리고 새로운 미래를 향한 움직임으로 시간을 보고 있다.²⁷⁾ 하나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임하였다는 점에서 과거이며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는 점에 있어서 미래이다. 동시에 그리스도인인 우리 가운데 하나님 나라에 대한 확신과 하나님의 섭리가 지금도 계속해서 실존하고 실현되고 있다는 점에서 현재이다. 따라서 교육은 과거, 현재, 미래가 통합되는 시간 속에서 이루어지는 순례적이고 정치적이며 역사적인 행위에 해당된다. 기독교 진로상담에 있어 하나님 나라의 실현은 현재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직업적 삶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이다.

나눔의 프락시스는 기독교 교육의 실존적 목표로서 모든 삶 속에서 총체적인 기독교 신앙이 증진되도록 돕는 과정으로 이끌어진다. 총체적 삶으로서의 기독교 신앙은 인지적, 정의적, 행동적 차원의 활동에 주체적으로 관여함으로써 형성되는 것이다. 이상의 세 차원은 기독교 교육의 과정에 균형 있게 포함되어야 하며 교육의 환경에서는 이들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방법들로 설계되어야 한다. 따라서 나눔의 프락시스를 적용한 기독교 진로상담은 '아는 것'과 '존재하는 것', 즉 '앎과 삶'이 통전되도록 돕는 전인적이고 총체적인 접근방법이라 할 수 있다.

나눔의 프락시스는 현재의 행동(present action), 비판적 성찰(critical reflection), 대화(dialogue), 기독교 이야기(the story), 기독교의 비전(the vision)이라는 다섯 가지 요소와 이들을 해석하는 변증법적 원리(present dialectical hermeneutics)를 더하여 여섯 가지로 설명된다.²⁸⁾ 현재의 행동은 개인이 대인관계, 사회적인 관계의 삶을 살아가면서 행해지는 신체적,

27) 강용원, 『기독교교육 방법론』 (서울: 한국기독교교육학회, 2008), 207.

28) Thomas H. Groome, *Christian Religious Education: Sharing Our Story and Vision*, 이기문 역, 『기독교적 종교교육』 (서울: 한국장로교출판사, 2011), 267-290.

정신적, 지적 그리고 영적 행위들을 말한다. 이러한 행동은 기본적으로 개인에 관한 것이지만 궁극적으로는 규범, 법, 기대, 이데올로기, 구조, 전통 등과 같은 사회적인 상황과 맞물려 개인의 현재 행동을 구성한다.

개인이 행하는 현재의 행동들은 과거를 되돌아보고 미래에 대한 새로운 의식을 불러일으키는 비판적 성찰의 대상이 된다. 현재의 행동 속에 과거, 현재, 미래를 모두 존재하도록 하는 비판적 성찰은 ‘현재를 평가하기 위한 비판적 사고’ (critical reason to evaluate the present), ‘현재 안에 있는 과거를 드러내기 위한 비판적 기억’ (critical memory to uncover the past in the present), ‘현재 안에 있는 미래를 그려보기 위한 창조적 상상’ (creative imagination to envision the future in the present)의 활동들을 포괄한다.²⁹⁾ 변증법적인 비판으로서 성찰은 적극적인 창조 행위에 해당되므로 미래의 교육을 위한 필수 요건이라 할 수 있다. 특히 진로상담에서 비판적 성찰을 통한 분별은 진로문제에 대한 개인의 사고, 기억, 상상과 더불어 성령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과의 언약에 대한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실재를 경험하도록 해준다.

나눔의 프락시스의 내용과 과정은 대화를 통해 이루어진다. 현재의 행동에 참여하는 비판적 성찰은 참여자 간 대화에 참여함으로써 가능한 것이다. 대화는 자기 자신과의 대화로부터 시작하여 나와 너라는 주체 대 주체의 상호 관계와 나눔을 통해 이루어지는 인격적인 소통을 의미한다. 이러한 대화를 통해 참여자들은 그들 자신의 행동 속에서 구체화된 이야기와 비전에 대해 성찰하고 각자의 몫을 나누어 참여하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기독교 신앙의 전수된 이야기와 개인의 현재가 함께 대화한다는 것은 피상담자가 생생한 현재의 경험으로부터 역사의 전통과 함께 대화하는 것을 의미한다. 과거의 사건과 현재의 사건 사이에서 상담자와 피상담자를 연결시켜 주는 대화가 바로 이런 대화이며, 이것은 공동체의 산물로서 예수 그리

29) Groome, *Christian Religious Education*, 269.

스도께서 개인을 이끄시는 장(context)이 된다. 이처럼 대화는 상담의 현장에서 피상담자로 하여금 비전을 요구하고, 도출된 이야기들은 피상담자의 진로에 대한 미완성을 일깨워 현실로부터 침묵하거나 회피하지 않도록 직면의 힘을 제공해준다.

Groome이 제시한 기독교 이야기는 하나님의 백성 전체와 그들의 신앙 전통이 표현되고 구체화된 이야기이다. 하나님은 역사 속에서 그의 백성들의 삶 속에서 실제 활동하시며,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순례의 길을 걷는다. 하나님의 구원 행위와 부르심에 응답해 온 기독교 신앙공동체는 여러 가지 예전을 통해 그들의 삶을 부각시키는데, 이러한 신앙 전승의 표현들은 기독교 이야기의 구조를 이룬다. 기독교 이야기는 개인에게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구속적인 사건을 경험하도록 한다. 개인은 전승된 기독교 이야기를 통해 자신의 신앙적 삶의 본질을 이끌어내며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 행위들을 구체적으로 경험한다. 하나님의 계시는 항상 역사 속에서 임하며, 그 역사적 상황이 지니고 있는 사회적인 풍조나 이데올로기는 개인의 신념에 의해 왜곡되거나 잘못된 해석을 일으킬 수 있으므로 기독교 이야기는 항상 프락시스에 의해 성찰된 능동적인 것이어야 한다. 진로상담에서 기독교 이야기는 피상담자의 삶에 일어나는 진로관련 행동들을 비판적 관점에서 성찰하도록 촉진하여 미래에 대한 희망과 결단을 내리는 자원이 된다.

비전이란 창조를 향한 하나님의 통치권의 실현을 의미하는 것이다. 창조를 향한 하나님의 의지와 의도하심, 그리고 약속하심은 온전한 하나님 나라의 실현이다. 완성된 하나님 나라의 약속은 개인에게 실제의 소망으로 다가오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기대하는 개인은 인내와 기다림 속에서 하나님 나라의 건설에 참여하도록 부름 받는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세계에 대한 비전의 언약은 각 개인이 현 세계에서 신앙 행동의 역사적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함으로써 이루어지는 것이지 결코 이론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비전은 그리스도인으로 하여금 삶의 과정

에서 취해야 할 것과 버려야 할 것에 대한 분명한 한계점을 분별할 수 있도록 하여 다가오지 않은 미래의 삶을 기대하도록 도와준다. 이런 점에서 기독교 진로상담은 의도된 교육적 상황 속에서 피상담자가 기독교 이야기를 만나고 그 안에서 비전을 나눌 수 있도록 이끌어지게 된다. 비전은 진로문제에 대한 각 개인의 응답이며 그 이야기 가운데 실재하는 하나님의 언약이다.

Groome은 나눔의 프락시스 접근을 현재의 변증법적 해석학이라 하였다. 여기에서 현재는 기독교 신앙의 이야기와 비전에 의해 개인의 이야기와 비전이 비판되는 것을 말한다. 이것은 개인의 과거로부터 살아온 이야기를 비판하고 또한 이루어져야 할 비전을 현재적인 빛에 의해 비판하는 것이다. 이처럼 현재와 과거, 또 현재와 미래 사이의 변증법적 관계의 해석학적 원칙을 변증법적 해석학이라 한다. 과거를 성찰하고 미래의 비전을 향해 나아가는 것은 해석학(hermeneutics), 현재(present), 변증법적(dialectical)이라는 세 가지 요소가 함께 맞물려 수행되는 하나의 과정이다. 동일한 관점에서 진로상담은 항상 현재에서 출발하기 때문에 과거의 기억을 돌아보면서 동시에 미래를 향해 내다보는 해석학적 입장에 놓인다. 이때 현재는 과거의 결과와 미래에 존재하는 하나의 거점으로 이해되므로 현재를 설명하려는 해석학은 현재로부터 과거와 미래에 이르는 양면 과정을 요구하게 된다.³⁰⁾ 다시 말해 변증법적 관계는 현재와 과거, 현재와 미래와의 연속선상에 놓인 직선적인 관계를 따라 이루어지는 연속적인 것이다.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나눔의 프락시스를 기초로 한 기독교 진로상담은 피상담자의 현재 당면한 삶과 사회라는 프락시스를 변증법적 맥락에서 해석하는 과정이다. 피상담자는 이 과정에서 자신의 진로행동에 대한 옳고 그름의 비판적 해석을 내리게 되고 궁극적으로 현재의 프락시스 극복을 위한 합의 단계로서 비전, 즉 나아가야 할 길을 발견하게 된다. 현재의 진로

30) Groome, *Christian Religious Education*, 287-288.

행동에 대한 기독교 이야기와 비전 사이의 변증법적 해석학은 진로목표에 대한 개인의 신앙과 삶 간의 격차에서 오는 한계를 스스로 인식하여 현 세계 안에서 미래를 향한 새로운 진로목표를 계획하고 준비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이끌어줄 수 있게 된다.

2) 기독교 대학생 진로상담의 모델과 실천방향

기독교 진로상담은 최근 청년실업으로 인해 이슈화되고 있는 사회문제와 더불어 새롭게 중시되는 기독교상담의 중요한 분야이다. 피상담자의 진로문제에 대한 절차와 내용을 단순한 지식과 정보로만 전달하려는 방식과는 달리 당면한 삶의 문제들을 기독교 신앙 안에서 검토, 성찰, 결단, 실천하도록 돕는 기독교 진로상담은 상담자와 피상담자 간 참여와 대화의 연속적인 과정으로 이루어진다. 또한 피상담자의 삶을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보다 창조적이고 성장 가능하도록 인도하는 신앙의 직접적인 실천과정으로 전개된다.

Groome이 제시한 나눔의 프락시스 교수-학습모형은 초기화 단계를 포함하여 여섯 단계로 구성된다. ① 제1단계: 현재의 프락시스 명명 혹은 표현하기, ② 제2단계: 현재의 행동에 대한 비판적 성찰, ③ 제3단계: 기독교 이야기/비전에 접근하기, ④ 제4단계: 기독교 이야기/비전과 참여자의 이야기/비전의 변증법적인 해석학, ⑤ 제5단계: 생동력 있는 기독교 신앙을 위한 결단/반응의 과정이 각 단계(movements)마다 역동적인 흐름을 따라 전개된다.³¹⁾ 나눔의 프락시스에 기초한 기독교 진로상담의 모델은 Groome의 교수-학습모형을 기초로 하여 기독교 대학생의 발달 및 심리적인 제반 특성을 고려하는 가운데 도입단계, 인지단계, 변화단계, 적용단계로

31) Groome, *Christian Religious Education*, 299-340. 여기에서 사용되는 '단계'(movements)의 용어상 의미는 계단처럼 분리된 단계적인 구조를 뜻하는 것이 아니라 교향악의 악장이나 무용처럼 논리적인 순서를 따라 자유로운 흐름의 과정으로 협연되는 것을 말한다.

설명할 수 있다.³²⁾

도입단계는 나눔의 프락시스 교수-학습모형의 초기화 단계와 제1 단계를 합한 삶의 표현단계이다. 이 과정에서는 기독교 대학생들의 프로그램 참여에 대한 동기를 유발하고, 참여자간의 대화를 촉진시켜 전체 프로그램에 대한 방향과 주제를 설정하도록 한다. 또한 진로문제에 대한 자신의 상황과 삶을 현재의 프락시스로 표현하도록 하여 참여자의 현재 진로행동에 대한 개인적 진술 및 자기이해를 촉진시킨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 받은 인간존재에 대한 본래의 의미를 깨닫는 기독교 인간관에 대한 이해와 상호 나눔은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주권을 재발견하고 피조물인 자기 자신을 객관적으로 인식하는 과정이다. 동시에 이것은 현재의 삶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존재 의미와 가치를 올바르게 수행할 수 있는 자원이 된다. 기독교 인간관은 하나님과의 관계와 더불어 하나님 안에서 기능하는 자기존재에 대한 확신을 부여하여 진로선택이나 직업결정 시 현대사회나 기성세대가 추구하는 직업원리를 따르는 것이 아닌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을 따라 주체적인 의사결정을 명료화해준다.

인지단계는 나눔의 프락시스 교수-학습모형의 제2단계로서 현재 삶의 성찰과 인지의 단계이다. 이 단계에서 수행되는 비판적 성찰은 기독교 대학생의 직업에 대한 동기과 이유, 기대와 소망들을 기독교적으로 인식하기 위한 과정으로 기독교적 진로정체감 형성 및 확립의 기초 단계이다. 이 과정에서는 직업세계에 대한 이해와 성경적 직업관의 개념을 명확히 인식하도록 이끌어진다. 참여자로 하여금 직업이 단순히 생계유지나 재화수단, 삶의 안정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소명임을 알게 하여 직업에 대한 기독교적 원리를 명확히 인식하도록 한다. 직업의 소명의를 따라 성경적인 직업관을 함양시키는 인지단계는 학생들이 현

32) 박진희, “나눔의 프락시스에 기초한 기독교 대학생 진로상담의 모델 연구” (박사학위논문, 고신대학교대학원, 2012), 141-158.

재(here and now)의 삶 속에서 직업을 통해 부르시는 하나님의 명령 앞에 순종하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직업의 본래 의미를 성경적인 관점에서 해석하여 당면한 진로문제에 대한 성찰과 나아갈 진로의 방향을 검토하도록 해준다. 이는 하나님께는 영광스러운 헌신이자 이웃과 사회를 위해서는 섬김과 봉사를 위한 실천의 통로가 되며, 자기 자신에게는 성경적 자아실현을 위한 뿌리가 된다.

변화단계는 나눔의 프락시스 교수-학습모형의 제3단계와 제4단계를 합한 것으로 행동에 대한 변화와 결단의 단계이다. 이 단계는 진로문제에 대한 현재의 행동을 기독교 신앙의 전통에 비추어 개인의 신앙으로 자기화하고 이후의 삶을 결단하는 단계이다. 기독교 신앙의 역사와 개인 신앙의 역사를 연결 짓는 대화의 접점에 기독교 세계관을 위치하게 하여 참여자 개인이 지각하는 신앙과 자신의 직업적 가치기준 속에 스며들어 있는 왜곡된 신념을 파악하도록 해준다. 기독교 세계관을 통해 참여자들의 현 세계를 조망하고 주어진 진로 과업 가운데서 각자의 진로의사를 결정하는 일은 전 생애동안 반복되는 삶의 과정이다. 기독교 세계관에 대한 인식과 올바른 관점은 현대 사회를 살아가면서 당면하는 여러 현안들에 대해 그리스도인으로서 지향해야 할 옳고 그름, 선과 악, 정의와 공의 등을 판단하고, 인생 전반에 대한 큰 그림의 설계 및 진로의사결정을 위한 기독교 진로상담의 핵심적인 과정이다.

적용단계는 나눔의 프락시스 교수-학습모형 제5단계를 적용한 것으로 기독교 신앙의 삶으로의 실천을 위한 단계이다. 참여자들은 무엇을 할 것인가에 대한 의사결정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진로과업을 구체적으로 실천하기 위한 과제를 갖게 된다. 적용단계는 참여자 개인이 선택한 목표 직업을 성공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과정들을 각자 선택하고 그 과정에 집중하도록 이끌어진다. 이 과정에서 경험하는 내용들은 향후 책임 있는 사회구성원으로 나아가는데 필요한 직업적응 능력들을 미리 경험해 볼 수 있는 장(context)의 마련과 구조적인 활동들로 구성된다. 따라서 적용단계는 이전에 수행된 도입, 인지, 변화 단계의 내용과는 달리 현대 사회의

직업 구조와 특성을 보다 현실적으로 반영하여 진로과업의 인식, 진로준비의 구체화, 진로설계, 진로의사결정, 진로선택 등 실질적인 진로준비를 돕기 위한 과정으로 전개된다.³³⁾

나눔의 프락시스에 기초한 기독교 진로상담의 네 모듈은 상호보완적인 형태로 구성되었다. 따라서 프로그램 참여자의 진로계획 정도와 상담 요구의 특성에 맞게 수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아직까지 고등학교 시기의 인지·정서체계를 유지하고 있는 신입생에게 프로그램을 적용할 경우 주로 도입단계와 변화단계를 중점에 두고 접근함으로써 기독교적 자기 이해 및 진로정체감 확립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취업을 현실적인 진로과업으로 두고 있는 4학년에게는 인지단계와 적용단계에 비중을 두어 진로선택과 직업결정의 시기에 있는 학생들에게 이상적인 진로목표를 추구하는 것이 아닌 현대 사회와 문화적 특성을 반영하는 가운데 자신의 적성과 능력을 실현해가도록 지원할 수 있다.

기독교 진로상담은 하나님 앞에서 전인적 변화와 성장을 목표로 수행되는 이론과 실천의 균형 잡힌 삶으로의 이행과정이라 할 수 있다. 이는 하나님 형상으로서 전인적 인간이 지니는 소명의식과 이를 위한 인지적, 정서적, 행동적, 그리고 관계적 변화에 따른 성장을 이행하는 과정을 의미하는 것이다.³⁴⁾ 또한 개인의 신앙과 진로과업에 대한 실천적 삶을 현재라는 프락시스로 통합시켜 나가기 위한 적극적이고 실질적인 과제임과 동시에 책임수행을 위한 반응이다.³⁵⁾ 이런 점에서 일반적인 진로상담의 선행연구 내

33) 본 연구에서 적용단계는 기독교 대학생의 취업 대비를 위한 진로설계와 직업결정, 직업적응의 활동들을 적극적으로 전개할 수 있도록 기존에 선행되어진 진로 및 직업 지도의 선행연구 결과들을 프로그램의 내용에 맞게 재구성하여 다루었다. 선행연구 프로그램은 한국고용정보원의 CAP+(career assistance program plus)와 CDP(career development program)의 모듈 중 프로그램의 목적에 적합한 모듈을 선택하여 구성하였다.

34) Milton J. Erickson, *Christian Theology* (Grand Rapids, MI.: Baker, 1985), 26–37.

35) Steve B. Prediger, "The Task of Integration: A Modest Proposal," *Journal of Psychology and Theology* 18 (1990): 20–31.

용들과 이론들은 기독교 신앙의 통전적인 관점에서 비판적으로 검토되어야 한다. 나아가 기독교 신앙으로 검토된 결과들은 진로상담의 실천적 분야에서 구체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보다 현실적인 맥락에서 접근되어야 한다.

III. 닫는 글

급변하는 현대 사회에서 직업의 성취는 직종의 유행이나 유망성에 비중을 두는 것이 아닌 개인의 지식과 창의성에 의한 합리적인 의사결정에 따라 결정된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다. 인적자원의 가치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현대 사회에서 직업을 통해 일을 한다는 것은 사회의 한 일원으로 나아가기 위한 직접적인 준비 대상인 기독교 대학생들에게 주어진 당면 과제이다. 기독교 청년들이 분명한 진로정체감을 형성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흥미와 적성, 성격 특성에 맞는 분야에서 자신의 열정을 쏟을 수 있도록 돕는 일은 현대 사회의 진로상담에 요청되는 중요한 역할이다.

기독교 진로상담은 현대 사회에서 요구하는 직업경쟁의 대열에 편승하기 위해 인위적으로 구조화되어진 것이 아니다. 오히려 성경에서 말하는 직업의 본질적인 의미와 내용을 회복하기 위해 의도된 전인적인 과정으로 이해하여야 할 것이다. 기독교 진로상담은 직업과 직업 세계에 대한 피상담자의 비합리적인 사고와 왜곡된 감정의 사이클을 성경이라는 진리로 교정하여 하나님께로부터 부여받은 직업적 소명과 직업윤리에 대한 인식을 명료화해준다. 또한 피상담자로 하여금 하나님의 마음을 경험하도록 하여 내면 깊숙이 존재하는 자기중심적인 신념을 성경중심적인 신념으로 대치시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회복하도록 이끌어준다. 마지막으로 피상담자의 현 세계를 바라보는 방식과 삶 전반에 대한 철학적인 변화 수행, 즉 기독교 세계관을 바꾸는 역동적인 과정으로 표현할 수 있다.

진로선택과 직업결정을 주된 진로문제로 인식하고 있는 기독교 대학생들로 하여금 현대사회·문화의 구조적인 특성과 변화, 여러 현안들에 대처할 수 있도록 가르치는 일은 더 이상 간과해서는 안 될 기독교상담의 시대적인 과제이다. 사회에서 드러나는 직업의 다양한 쟁점들과 이로 인해 야기되는 긴장과 불안, 두려움들은 대학생들이 처한 상황에서 생존과 안전의 욕구를 자극하는 주요 동인이다. 동시에 이러한 자극들은 청년기의 건강한 성장을 저해하는 진로의 장벽이자 위기요인이 되기도 한다. 이런 점에서 기독교 대학생의 진로상담은 청년 발달에 나타나는 다양한 이론과 실제를 삶의 현장에서 균형 있게 적용하는 것을 목표로 수행되어야 할 것이다. 향후 기독교 진로상담의 발전을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세대별, 발달과업별, 주제별 상담프로그램이 다양하게 연구되어야 하며, 이를 검증하기 위한 상담의 실제들이 기독교상담의 실천적 학문분야에서 지속적으로 검토되고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 참고문헌 】

- 강용원. 『기독교교육 방법론』. 서울: 한국기독교교육학회, 2008.
- 고용노동부. 『2011 한국직업전망』. 서울: 한국고용정보원, 2011.
- 김성수. “개혁주의 기독교교육의 원리와 과제”. 『하나님의 주권과 은혜: 이근삼 박사 사역50주년 기념 논집』. 서울: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 출판국, 2002.
- 김세열. 『기독교 경제논리』. 대전: 한남대학교 출판사, 1999.
- 김윤기. 『현대직업윤리』. 서울: 학문사, 1997.
- 김충기. 『직업교육과 진로교육』. 서울: 한국학술정보(주), 2004.
- 노경란 외. 『청년층 직업지도프로그램(CAP+ver.1) 개정연구 매뉴얼』. 서울: 한국고용정보원, 2007.
- 박진희. “나눔의 프락시스에 기초한 기독교 대학생 진로상담의 모델 연구”. 박사 학위논문, 고신대학교대학원, 2012.
- 손원영. 『기독교 교육과 프락시스』. 서울: 한국장로교출판사, 2001.
- 손원영. 『프락시스와 기독교 교육과정』.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01.
- 신국원. 『니고데모의 안경』. 서울: IVP, 2005.
- 오윤선. “기독교 학생을 위한 진로상담 프로그램이 진로의사 결정과 자아개념에 미치는 영향”. 한국복음주의 기독교상담학회. 『복음과 상담』 제13권(2009): 118-136.
- 이숙경. 『기독교 교육과 문화이해』. 서울: 도서출판 그리스심, 2005.
- 이찬규. “공직 윤리 제고방안 연구: 칼빈의 직업 윤리적 관점을 중심으로”. 박사학위논문, 천안대학교 기독교전문대학원, 2006.
- 정철영 외. 『대학생을 위한 진로지도 프로그램 CDP-C 워크북』. 서울: 한국고용정보원, 2009.
- 조성국. “한국 기독교교육의 교육적 인간상의 이상과 현실”. 한국기독교교육학회. 『기독교교육논총』 제10권(2004).
- 황혜리·류수정. “대학생의 진로결정수준과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진로장애, 진로태도성숙 및 영적 안녕과의 관계”. 한국기독교상담 심리치료학회. 『한국기독교상담학회지』 제18권(2009): 355-380.
- Erickson, Milton J. *Christian Theology*. Grand Rapids, MI.: Baker, 1985.

- Ginzberg, E., S. W. Ginsburg, S. Axelrad & J. L. Herma. *Occupational Choice: An Approach to a General Theory*. New 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1951.
- Greene, A. E. *Reclaiming the Future of Christian Education: A Transforming Vision*. 현은자 외 역. 『기독교세계관으로 가르치기』. 서울: CUP, 2000.
- Groome, T. H. *Sharing Faith: A Comprehensive Approach to Religious Education and Pastoral Ministry*. 한미라 역. 『나눔의 교육과 목회』. 서울: 기독교대한감리회홍보출판국, 1997.
- Groome, T. H. *Sharing Faith: A Comprehensive Approach to Religious Education and Pastoral Ministry: The Way of Shared Praxis*. Eugene, OR.: Wipf and Stock Publishers, 1998.
- Groome, T. H. *Christian Religious Education: Sharing Our Story and Vision*. 이기문 역. 『기독교적 종교교육』. 서울: 한국장로교출판사, 2011.
- Guinness, Os. *The Call*. 홍병룡 역. 『소명』. 서울: IVP, 2006.
- Hoekema, Anthony. A. *Created in God's Image*. 류호준 역. 『개혁주의 인간론』. 서울: 기독교문서선교회, 1990.
- Knudsen, Robert D. *Sociology: The Encounter of Christianity with Secular Science*. 서영일 역. 『기독교 사회학』. 서울: 은성, 1989.
- Niebuhr, Richard H. *Christ and Culture*. 홍병룡 역. 『그리스도와 문화』. 서울: IVP, 2007.
- Prediger, Steve B. "The Task of Integration: A Modest Proposal." *Journal of Psychology and Theology* 18(1990).
- Stott, John R. W. *The Contemporary Christian*. 한화룡 · 정옥배 역. 『현대를 사는 그리스도인』. 서울: IVP, 1993.
- Super, Donald E. "Career and Life-Space Approach to Career Development."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18(1980).
- Tiedeman, David V. & Robert P. O' Hara. *Career Development: Choice and Adjustment*. New York: College Entrance Examination Board, 1963.
- Weber, Robert E. *The Secular Saint: The Role of the Christian in the Secular World*. 이승구 역. 『기독교 문화관』. 서울: 엠마오, 1993.

Wolters, Albert M. & Michael W. Goheen. *Creation Regained: Biblical Basics for a Reformational Worldview*. 양성만 · 홍병룡 역. 『창조, 타락, 구속』. 서울: IVP, 2007.

고용노동부 워크넷. <http://www.work.go.kr>.

통계청. <http://www.kostat.go.kr>.

한국고용정보원. <http://www.keis.or.kr>.

【 Abstract 】

A Study on the Career Counseling of
Christian University Students on the Basis of Shared Praxis

Jin Hee Park

Kosin University

Having a career upon college graduation is absolutely necessary task for the purpose of personal growth and the enjoyment of fulfilled life. Christian career counseling to help Christian university students to prepare for, adjust in and maintain healthy career is not general career counseling, but a holistic process on the ground of Christian worldview and sense of calling based on the Scriptur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chor essential values of young adults' career counseling during the period of identity formation on Christian worldview, Christian view of humanity, and biblical view on vocation, so that one can execute one's career counseling from the practical standpoint of faith to help Christian young adults to adjust in their society as healthy members. Christian career counseling based on Shared Praxis is to proceed the young adults' task in career as action-critical reflection-new action. The meaning of holistic being of Christians created according to the image of God, and the essential meaning of vocation based on the sense of calling are considered by Christian perspective from the integrated point of view. In order to develop career counseling model for Christian university students who want to design and prepare for their task in career, Christian career counseling modules on the Shared Praxis model, it suggests introductory step, recognition step, transformation step, and application step. Each modules are designed for apply to restructure in the practical field of Christian faith.

Key words: career counseling, Christian counseling, Christian career counseling, Christian university students career counseling, Shared Praxis